

구약논단

제15권 2호(통권 32집) 2009년 6월 30일

기 민석(침신대) 시 82편: 우가릿의 목소리, 이스라엘의 노래	111
본 연구는 시 82편에 나타난 우가릿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이 시편의 정신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천상의회' (אל-תהא א다트 엘)와 야훼에 의한 신들의 재판을 검토하고자 한다. 시 82편은 가나안 토속 종교와 아우리진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여준다.	
Kee, Min-Suc Psalm 82: Ugaritic Voice, Israelite Song	111

시 82편: 우가릿의 목소리, 이스라엘의 노래¹⁾

기 민석 | 침신대

1. 들어가면서

시 82편은 짧지만 매우 난해한 시로 알려져 있다. 머릿글에서 이 시가 아삽의 노래에 속한다고만 간단히 보고하는 시 82편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은(אלהים 엘로힘) 신(들)의 의회(אֱלֹהִים 아다트 엘)에 서서 신들(אלהים 엘로힘) 가운데에서 재판하신다.²⁾
2.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낮 세워주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3.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
4.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5.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1) 본 논문은 제 81차 한국구약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2) 이 시는 신명 '야훼'가 '엘로힘'으로 대치되는 소위 엘로히스트 시편(Elohistic Psalms; 시 42편-86편) 중 하나이다. 그럼으로 이 구절의 첫 번째 엘로힘은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Marvin Tate도 그의 시편 주석 *Psalms 51-100*,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Books, 1990), 329쪽에서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6.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אלהים 엘로힘)이며 다 지존자(יְיָ אֱלֹהִים 엘론)의 아들들이라
7. 그러나 너희는 ‘아담’(אָדָם 아담)처럼 죽으며 한 ‘빛나는 이’(אֱלֹהִים 싸림)같이 넘어지리로다.”
8. 하나님이며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당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많은 의구점을 낳는 이 시는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에서 신들을 심판하신다는 다신론 혹은 일신교적(monolatry) 배경을 보이고 있으며 - 물론 이 신들을 고대 이스라엘의 천사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다 - 여러 신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내용도 구약 성서에서는 다소 낯선 광경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 세상의 정의는 당연히 야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구약 성서의 확고한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이 세상의 불의가 야훼가 아닌 그 아래 임명받은 신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소한 이야기를 한다.³⁾ 7절에 형벌을 받을 신들이 ‘고관(高官)처럼 넘어진다’는 전통적 번역도 어색하기 때문에, 위에서는 다른 몇 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해석된 번역을 따랐다.

구약 성서의 많은 난해 본문들을 종종 고대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문헌 연구를 통하여 조명하는 일은 흔한 연구 작업이었다. 더욱이 시편은 다훗(M. Dahood)의 유명한 주석⁴⁾으로 인해 우가릿 문헌의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저자가 시도하려는 것도 난해한 시 82편 해석에 대해 우가릿 문헌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다훗은 시 82편에 많은 주석을 할애하지 않았다.

이 시의 전체적 의미를 완결하려는 주석적 연구는 더 큰 작업이기에 여기에서는 절제하고 다만 우가릿 문헌이 얼마만큼 시 82편 이해에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려 한다.

우선은 이 시의 첫 절에서 말하고 있는 신들의 모임(עֲדַת־אֱלֹהִים 아다트

3) 다음 구절들을 참조. 시 7: 7-12; 9: 8-9; 10: 14-18; 17: 2; 26: 1-3; 28: 3-4; 68: 6; 74: 21; 76: 10; 94: 1-7; 96: 10-13; 97: 2; 98: 9; 99: 4; 146: 9; 암 5: 21-24; 미 6: 6-8. 이와 관련한 신정론의 문제는 본 논문이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 82편의 올바른 이해는 신정론과 반드시 연관 지어 이해되어야 하며, 야훼 하나님의 임무를 다른 신적 존재들이 여러 면에서 대신 전가 받는 구약 성서 후기/이후 문서의 천사론과도 밀접히 연관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4) M. Dahood, *Psalms* (The Anchor Bible, 16, 17, 17A), (NY: Doubleday, 1966-1970).

엘) 명칭을 우가릿 문헌의 신들의 명칭과 비교하여, 이 모임의 중요도와 심각성을 가늠하려 한다. 그 다음은 위에서 시도한 7절의 새로운 번역에 대한 당위성을 우가릿 문헌을 통해 입증할 것이다. 더불어 구약 성서에서 시 82편처럼 다신론 혹은 일신교적 목소리를 드러내는 소위 '이방적' 요소들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논하여 볼 것이다. 그리하여 다신론적인 가나안의 문화 속에 토착화되고 융합된 '민속적' 야훼 종교의 면모를 발견하고자 한다.⁵⁾

2. אֱלֹהִים(아다트 엘/신의 의회)의 권위

구약 성서를 비롯한 고대 서아시아의 문헌은 신들의 모임에 대한 무수한 기록을 남겨주었다. 이 신들의 모임은 당시 그 지역의 가장 권위 있는 의결 기관으로 여겨졌는데, 이 모임을 통하여 신들과 인간 세계의 중요한 일들의 법적 판결을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외에도 인간 세계의 왕권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의결 기관이었고, 더 나아가 그 모임의 우두머리 신을 찬양하거나 그 신의 뜻을 선포하는 역할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신들의 모임, 소위 천상의회(天上議會)의 다양한 활동은 거의 공통적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히타이트, 우가릿,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헌 속에 나타난다.⁶⁾

5) 우가릿 문헌이 발견된 Ras Shamra는 가나안이라 여겨지는 대략의 팔레스타인 지역보다 다소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우가릿 문헌이 얼마나 가나안의 종교를 대표할 수 있겠느냐는 시비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학자들은 가나안의 신들에 대한 성서 이외의 역사적 자료를 결정적으로 제공하는 우가릿 문헌을 통해 가나안의 문명을 엿보고 있다. 우가릿과 그 고고학적 가치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A. H. W. Curtis, *Ugarit - Ras Shamra* (Cities of the Biblical World), (Cambridge: Lutterworth Press, 1985); "Ugarit: Clues from a Canaanite City?" *Bulletin of the Anglo - Israel Archaeological Society* 15 (1996-97), 105-6쪽; "Ras Shamra, Minet El -Beida and Ras Ibn Hani: The Material Sources," W. G. E. Watson/N. Wyatt (eds.), *Handbook of Ugaritic Studies (HdO 39)*, (Leiden, Boston, Köln: Brill, 1999), 5-27쪽; 조 상열, "우가릿 문헌과 구약성서의 관계: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28 (2008), 128-141쪽; 유 윤중, "우가릿 문헌의 rpm과 구약성서," 「구약논단」 8 (2000), 221-249쪽.

6) 천상의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저자의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Min-Suc Kee, "The Heavenly Council and Its Type-scene," *JSOT* 31.3 (2007), 259-273쪽. 간단한 단권으로는 H. -D. Neef, *Gotteshimmlischer Thronrat*, (Stuttgart: Calwer, 1994)이 있으며, E. T. Mullen, *The Assembly of the Gods* (Harvard Semitic Monographs), (Chico: Scholars Press, 1980) 그리고 L. K. Handy, *Among the Host of Heaven: The Syro-Palestine Pantheon as Bureaucracy*, (Indiana: Eisenbrauns, 1994)도 천상의회를 소개하는 대표적 저서이다. 다만 기존의 저서들이 천상의회를 지나치게 우가릿 문헌에만 의존하여 관찰하는 단점이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사실 고대 서아시아에서 천상의회에 대한 가장 풍성한 기록을 담고 있는 곳은 메소포타미아이다.

천상의회를 지칭하는 구체적 명칭이 몇 가지가 있다. 물론 신들의 모임을 묘사하는 문헌 속에 그 명칭들이 반드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서에서 특별히 그 명칭을 표기하는 본문과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렘 23장 18절, 22상반절, 욥 15장 8절, 시 25편 14절, 89편 8절(한글 7절) 등에는 **יָס**(소드/모임)라는 신들의 모임의 명칭이 나타나며, 암 8장 14절, 시 49편 20절(한글 19절), 73편 15절에는 **רִי**(도르/모임, 세대)가 나타나고, 사 14장 13절에는 **מוֹעַד מִיָּס**(하르 모에이드/집회의 산)가 나온다.⁷⁾ 더불어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는 시 82편 1절은 **לֹא יָסַדְתָּ**(아다트 엘/신의 의회)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 모든 명칭들은 구약 성서의 세계와 아주 근접했던 우가릿 문헌과 주전 10~11세기의 시리아-팔레스타인 명각(銘刻) 문헌에도 발견될 만큼 보편적이기도 하다.⁸⁾

과연 그 명칭들은 각각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특히 매우 독특하고 개성이 강한 시 82편을 통하여, 세상의 불의를 조장하는 패역한 신들을 정죄하는 강력한 이 모임의 특성이 이 모임의 명칭인 **יָס**(에이다/지정한 모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여러 천상의회들의 성격과 그 명칭들의 언어적 의미의 연계성을 살펴보자. 렘 23장 18절, 22상반절, 욥 15장 8절, 시 25편 14절에는 **יָס**(소드/모임)가 하나님 의 회의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누가 여호와와 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렘 23: 18)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렘 23: 22)

네가 하나님의 회의에서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욥 15: 8)

여호와와 의 회의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시 25: 14)

יָס(소드/모임)를 명칭으로 하고 있는 위의 천상의회들은 모두 천상

7) Min-Suc Kee, *위글*(2007), 261-263 쪽. 특히 **יָס**에 관하여는 Neef의 *위글*(1994)을 참고하라.

8) Min-Suc Kee, *위글*(2007), 261쪽 각주 4를 보라.

의 비밀이나 지혜와의 '친밀성'을 말하려는 표현 속에 사용되고 있다. 위의 예레미야 구절들은 적법한 예언자가 천상의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전통과 관련이 있는 구절들이다. 천상의회는 온 우주 만물의 생사화복을 관할하는 모임으로서, 이러한 믿음은 '점술(占術)'에 대한 전승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예언자들이 천상의회와 접촉을 하여 하늘의 신비를 알게 된다는 전승 또한 야기하였다. 그러한 전승은 여러 메소포타미아의 점술 문헌과 구약 성서 왕상 22장의 선지자 미가야의 환상, 그리고 사 6장의 선지자 이사야의 환상 등에도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지혜' 전승에도 흡수되어 길가메쉬나 다니엘서, 그리고 욥 15장 8절에 나타나며, 묵시 계통의 문헌도 천상의회와 친밀해야 신비와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말한다.⁹⁾ 위의 관련 구절들 중 마지막에 있는 시 25편 14절도 천상의회에 대한 친밀성을 말하는 본문임이 분명하다. 즉 יִם(소드/모임)는 신적 존재들이 모여 신과 인간의 세계에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 은밀히 대화를 나누는 회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¹⁰⁾

BDB(691)가 밝히고 있는 יִם(소드/모임)의 의미와 용례는 모두 하늘의 비밀에 대한 '친밀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같은 어근의 다른 셈어 용례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비밀이나 지혜 그 자체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암 3: 7; 4Q400 I 4-5). 즉 יִם(소드/모임)는 그 고유한 의미와 천상의회의 이름으로 사용될 때의 뉘앙스가 서로 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¹¹⁾

9) 천상의회에 대한 이런 관찰은 저자의 다음 논문에 구체적인 관련 문헌 정보와 함께 밝혀 놓았다: 기 민석, "우가릿 문헌 KTU 1.16.v 와 사 6장을 비교하여 살펴본 이사야의 시명," *코아마르아도나* 0(엄원식 박사 퇴임논문집 발간 위원회: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145-46쪽

10) 다만 다소 예외의 경우가 한 군데 발견되는데 시 89: 8(한글 7절)의 경우는 천상의 존재들이 모여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그 권능을 찬양하는 전형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이 구절은 사실 바로 그 앞에 언급된 '거룩한 이들의(신적 존재들의) 모임' (6절 [한글 5절])을 지칭한 קָהָל(카할/모임)과 서로 같은 의미로 쓰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 명칭의 고유한 의미와 관계가 있는 경우라기보다는 같은 명칭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문학적 스타일 때문에 사용된 명칭들로 보인다. 참고로 קָהָל(카할)은 מִצֵּי(에이다)와 함께 '모임' 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용어로서 신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것은 위의 시편 89편에서 유일하게 언급되며 구약 성서 이외의 고대 서아시아 문헌에서는 같은 어근이 '모임'을 나타내는 일로 사용되지 않는다. Min-Suc Kee, "A Study of the Heavenly Council in the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 and Its Employment as a Type-Scene in the Hebrew Bible" (미 발간 박사학위 논문: Univ. of Manchester, 2003), 25쪽 참조.

11) 반면 우가릿에서는 단 한번 KTU 1.20.i.4에 등장하는데 신격화된 죽은 왕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קָי (도르/모임, 세대)는 암 8장 14절과 시 49편 20절(한글 19절)에서 신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단아, 네 신들이 살아 있다! 브엘세바야, 네 (신들의) 모임이 살아 있다”...(암 8: 14)¹²⁾

그들은 그들 조상들의 모임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 하리로다(시 49: 20)

암 8장 14절의 קָי (도르/모임, 세대)는 신들이 모여 있는 모임 자체를 가르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시 49편 20절은 구약 성서 곳곳에서 말하는 ‘음부’(스올)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가서 모여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시편의 구절에서는 특별히 ‘조상들의 모임’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우가릿 문헌에 나오는 죽은 왕들이 신격화되어 모여 있는 모임인 KTU 1.20.i.4의 sd(모임)¹³⁾와도 비견될 수 있는 모임을 의미한다. 물론 유사한 믿음이 쿰란 문헌이나 여러 위경 등과 같은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 사상 안에서도 발견된다. קָי(도르)는 יס(소드)처럼 그 모임 속에서 벌어지는 행위의 성격을 드러내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하게 그 모임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 또한 아니다. BDB(189-90)가 명시하는 바와 같이 우선 이 단어의 기본적 의미 자체가 기간이나, 세대, 처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קָי (도르)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아우르는 특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즉 물리적 측면의 모임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신이나 죽어 신격화된 이들이 특정한 곳에 모여 독특한 격이나 상태로 이루어진 총체적 집단, 세대로서의 의미를 풍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구약 성서의 천상의회를 가르치는 용어로서는 이방신들과 스올이라는 물리적 시간적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을 지시하는 용어로 쓰인다. 우

용어로 사용된다.

- 12) 이 구절에서(올바른 이해를 위해 MT의 모음을 생략하여) קָי 는 קָיִּי וְאֱלֹהֵיהֶם와 병행을 이루기에, ‘네 (신들의) 모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BHS의 각주가 설명하듯 헬라어 역본도 그렇게 증언하며, 표준새번역과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NIV 등도 ‘신(들)’으로 이해한다.
- 13) 우가릿어의 모음을 재구성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다 - 어떤 학자들은 재구성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추정적이다 - 따라서 구체적 발음은 생략하고 그 자음만 알파벳으로 표기한다.

가릿 문헌에서 천상의회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dr*도 구약 성서의 용례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사용되었다.¹⁴⁾

다음, 사 14장 13절에는 מועד הר (하르 모에드/집회의 산)가 나오고, 본 논문의 관심 대상인 시 82편 1절에는 אלת אד (아다트 엘/신의 의회)이 나온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차폰의 높은 곳에 ... (사 14: 13)

하나님은 신의 의회 가운데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시 82: 1)

위 두 구절에 나오는 신들의 모임 명칭은 같은 어근 *u*: (야아드/지정하다, 모이다)에서 비롯된 단어이다. 위 두 명칭은 대단히 권위 있는 의결과 집행을 행하는 의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이사야 구절은 바벨론 왕을 꾸짖으면서, 그를 유대교 전통 속에 타락하고 교만한 천사인 ‘아침의 아들 계명성’(12절)에 견주어 말하는 구절이다. 차폰은 흔히 ‘북(北)’으로도 번역되는데, 우가릿에서는 이곳이 신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묘사된다. 극심히 교만한 상태를 그리려는 의도가 있기에 차폰산에 집결한 מועד(모에드)는 분명 신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나 최고신들의 모임으로 여길 수 있다.¹⁵⁾ 이스라엘의 광야 유랑 시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가 만나는 중요한 모임의 장소인 회막도 이 용어를 사용하여 מועד אהל (오헬 모에드/만남의 천막)라 명명한다.

시 82편에 나오는 같은 어근의 אד(에다) 또한 매우 의미심장한 모임이다. 이 신들의 모임은 세상을 다스리는 임무를 부여받은 신들이 불의한 처정을 하자 이들을 단호히 심판하는 모임이다(7절). 이 두 명칭의 어근 *u*: (야아드)의 주 의미는 ‘지정하다’이며, מועד(모에드)는 그 의미를 잘 반영하여 지정된 시간이나 장소나 모임을 뜻하고, אד(에다)도

14) *dr bn il*(신의 아들의 모임) - KTU 1.40. R.25, 35; V.42; 1.65.2; *dr il*(신의 모임) - KTU 1.15.iii 19; 1.41. R.16; 1.39.7; 1.87.17이하; *dr dt smm*(하늘의 세대) - KTU 1.10.i 5.

15) J. Macdonald, "An Assembly at Ugarit?" *Ugarit - Forschungen* 21 (1979), 521쪽(Min-Suc Kee, 윗글[2003], 108쪽 재인용).

지정된 무언가를 위해서나 지정된 성격에 맞추어 모이는 모임을 뜻한다 (BDB 416-18 참조). 그렇기 때문에 밀그롬(J. Milgrom)도 מָוֹעַד (에다)를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기 전 의회 정치 행정 체제가 있을 때에 사용된 '전문용어'임을 주장하며 '모임'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와 차별한다.¹⁶⁾

시 82편의 의회가 가지는 권위와 심각성은 사 14장 13절뿐만 아니라 같은 어근의 명칭을 지닌 우가릿의 천상의회 명칭을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다. 같은 어근의 우가릿 천상의회 명칭은 KTU 1.2.i의 $m'd$ (모임)로, 그리고 KTU 1.15.ii의 dt (모임)로 등장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phr m'd$ 는 KTU 1.2.i 14, 15, 16-17, 20, 31에 나오며, $dt ilm$ 은 KTU 1.15.ii 7-11에 나온다. $phr m'd$ 에서 phr 는 '의회, 모임'을 뜻하며, 우가릿 문헌과 메소포타미아 문헌에서 천상의회를 지칭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리고 $m'd$ 는 히브리어 מוֹעֵד (모에드)와 같은 말로서 '지정된 시간, 장소, 모임'을 의미한다. 즉 $phr m'd$ 는 '각별히 지정된 모임'의 뜻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dt ilm$ 에서 ilm 은 '신들'이란 뜻이고, dt 는 위 시 82편 1절의 אֲדַת (아다트)와 같은 말로써, 이 히브리 단어와 상응하는 어근 $y'd$ 에서 비롯된 단어이다. 물론 $m'd$ 도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으며, 그 뜻도 히브리어와 동일하여 '지정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우가릿어 $m'd$ 와 dt 는 히브리어 מוֹעֵד (모에드)와 אֲדַת (아다트)에 각각 동일한 의미와 어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가릿에서 $y'd$ 를 어근으로 하는 두 용어 $m'd$ 와 dt 는 가장 자주 쓰이고 일반적으로 '총체성'을 의미하는 phr 와는 달리, '각별한' 모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⁷⁾ 이는 같은 어근의 히브리어 용례, 즉 מוֹעֵד (모에드), אֲדַת (아다트)와 일치한다.

특히 $phr m'd$ 와 $dt ilm$ 가 사용된 KTU 1.2.i와 KTU 1.15.ii은 우가릿 문헌에서 유일하게 천상회의를 '주요 장면' 기술 방법으로 그리고 있는 본문들이다.¹⁸⁾ 이 두 본문은 신들의 의회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16) J. Milgrom, *Number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New York: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335쪽 (저자의 Min-Suc Kee, 윗글[2003], 26쪽 재인용).

17) J. Macdonald, 윗글(1979), 521-24쪽.

18) '주요 장면' 기술이란 구약성서를 포함한 고대 서아시아 문헌에서 천상의회를 전형적 기술 방법으로 그 회의 과정을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 기술 방법이란 의장 신을 가운데에 두고 의회의 회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그리는 것이며, 이 기술에 사용되는 용어

기록하고 있으며, 최고신인 엘(El)의 포고가 선언되는 곳이다. KTU 1.2.i에 나오는 신들의 모임은 가나안 최고신인 엘의 후계자 문제로 심각한 논의와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이다. 그래서 이 신들의 모임을 몇 학자들은 ‘the Great Assembly’라고 번역하기도 한다.¹⁹⁾ 왕권을 바알(Baal)에게 넘기려는 엘에게 불만을 품은 얌(Yam)은 자신의 사신들을 모임에 보내는데, 그 곳에 다다르면 맨 먼저 정중히 절하여 예의를 갖추는 것을 명하였다. 이는 그 모임이 상당히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모임임을 암시한다.²⁰⁾ 그 모임은 엘와 신들이 다같이 모여 식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후계자로 지명된 바알은 엘 바로 옆에 서 있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매너도 매우 공식적인 모임의 일면을 보이는 것이다. 더불어, 고대 서아시아 문헌에서 신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위 있는 의회들은 회원들이 음식을 나누는 연회와 같이 열린다는 관찰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²¹⁾

KTU 1.15.ii도 두말할 것 없이 매우 권위 있는 천상의 모임을 묘사하는 본문이다. 여기서 왕 케렛(Keret)은 신들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고, 엘은 케렛과 그의 결혼의 풍성한 결실을 축복한다. 그의 성공적 인생을 신들이 모여 공식적으로 보장 선언하는 권위 있는 의회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관찰한 바와 같이 우가릿 문헌에서는 다른 명칭으로 표현된 어떤 천상의회 보다도 *phr m'd*와 *dt ilm*에 그 권위와 무게가 뚜렷이 실려 있는 것이 분명하다. 더불어 같은 어근의 명칭을 사용하는 시 82편의 천상의회도 그 권위가 유추될 수 있다.

3. ‘아담’(אָדָם 아담)과 ‘빛나는 이’(אֱלֹהִים 짜림)

시 82편 1절은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에 서서 다른 신들을 재판한다는

들은 문헌간 매우 유사하다. 이에 대하여는 저자의 논문 Min-Suc Kee, *윗글*(2007), 259-273쪽을 참조하라.

19) N. Wyatt, *Religious Texts from Ugari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58쪽 각주 100 참조.

20) 유사한 매너를 보여주는 중요 모임은 다음에서도 관찰된다: KTU 1.1.iii 2-3; KTU 1.2.i 23-24.

21) M. S. Smith, *The Ugaritic Baal Cycle - Introduction with Text, Translation and Commentary of KTU 1.1-1.2 Vol. 1* (VTS 55), (Leiden: E.J. Brill, 1994), 13, 230쪽; Enuma Elish Tab VI 53b-55; ‘A prayer of old Babylonian ritual’; 참조 A. Goetze, “An Old Babylonian Prayer of the Divination Priest,”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22 (1968), 26쪽; 사 25: 6; 겔 39: 17-20도 참조.

장면을 소개하는데, 그 이유는 2-4절에 드러나는 것처럼 신들이 세상을 정의롭게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유일신 사상이 팽배한 구약 성서에서는 매우 낮은 표현이다. 다만 그와 유사한 내용이 시 58편 1-2절에 담겨 있다:

신들아(𐤀𐤁𐤍 엘렘)²²⁾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나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나.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이러한 묘사는 사실 다신론적인 배경을 지닌 고대 서아시아의 문헌에서는 그리 낮은 상황이 아니다. 그 문헌들에서 신들의 모임 속에 그 우두머리 신이 다른 신들을 모아 놓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더욱이 고대 서아시아 문헌에 나타난 천상의회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판하는 것이다. 하늘의 신들이 세상의 나라들을 분담하여 치리의 임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고대 서아시아의 문헌에서는 낮은 것이 아니다(참조, Enuma Elish Tab 6; KTU 1.3.vi 16).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사상의 흔적이 구약 성서에도 여색하게 드러나 있다:

저극히 높으신 자(יְיָ 엘온)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신들의 자손의²³⁾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와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신 32: 8-9)

더불어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왕하 17장 24-28절, 단 10장 13절, 20

22) 전통적으로 이 단어를 '통치자'로 이해하여 왔으나 이는 본문과는 거리가 멀다. 올바른 이해를 위해 다음의 근간 주석을 보라: A. H. W. Curtis, *Psalms* (Epworth Commentaries; London: Epworth Press, 2004), 124쪽. 더불어 이 단어의 올바른 모음 표기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Marvin Tate, *Psalms 51-100*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Books, 1990), 82-82쪽.

23) 본래 맛소라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 적혀있는데, 이는 정황적으로 본문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더군다나 헬라어 역본이 이 부분을 '신들의 자손'으로 증언하고 있다. 이 의구는 쿨란 문헌이 발견되고 그 문헌이 '신들의 자손'으로 증언하기에 해소 될 수 있었으며, 지금 NRSV 와 공동번역은 '신들의 자손'으로 올바르게 번역한다. BHS의 각주를 참고하라.

절 이하, 12장 1절, 시락서 17장 17절, 그리고 예녹 1서 89장 59절 등이 유사한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구약 성서의 신관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본문들의 발견은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고대 이스라엘의 신관이 발달하는 과정 속에, 포로 시기 이후 제 2 이사야 정도에서 발견되는 절대적 유일신 사상 (monotheism)은 구약 성서 형성을 주도했던 일부 적극적 야훼 신봉주의자들의 목소리이며, 그 이전 이스라엘 백성의 민간적 신앙은 무척 다신론 혹은 일신론적(monolatry) 상태로서 혼합 종교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와 같은 종교적 상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할 당시의 역사 속에 잘 드러나 있다. 한 지역에 있는 한 민족은 여러 신 중 특정한 신을 믿는다는 일신교적 고백은 삼상 26장 19-20절, 룻 1장 15-16절, 왕하 5장 17절이 잘 증언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들을 즐겨 섬겼다는 증언도 풍부하다. 몰렉(Molech)을 섬겼던 기록은 왕하 16장 3절, 21장 6절, 왕하 23장 10절, 렘 7장 31절이 증언하며, 그 신을 금지하는 다음 구절들은 오히려 몰렉의 '인기'를 반증한다: 왕하 16장 3절, 21장 6절, 23장 10절, 렘 7장 31절. 심지어 야훼 하나님을 몰렉 섬기듯이 믿었던 행각도 겔 20장 25-26절, 미 6장 7절에 암시되어 있다. 태양 신 쉘메쉬(Shemesh)를 섬긴 기록은 왕하 23장 11절에 나오며, 신 16장 21절에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아세라(Asherah)도 섬겼는데, 이는 Kuntillet Ajrud 문헌(기원전 8세기 초기)도 증언하며, Khirbet el Qom 문헌(약 기원전 700년)에도 유사한 문구가 적혀 있다.²⁴⁾ 기원전 6세기 말의 Elephantine 문헌에 의하면, 나일의 엘레판친 섬 Yahu('Yahweh')의 신전에서 여신 아낏(Anat)은 유대인들이 섬겼던 두 여신 중 하나이기도 하였다. 구약 성서를 비롯한 이 증언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포함한 상위 계층이 행하였던 종교 형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의 '민속' 신앙은 더 혼합적이고 다신적이었을 것이 매우 자명하다.²⁵⁾

24) ... brkt 'tkm ljhwh smm w'srth (I bless you by YHWH of Samaria and his asherah;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로 너를 축복한다; Kuntillet Ajrud 문헌)

25) 당시 이스라엘 민간신앙의 적나라한 실체에 대한 William G. Dever의 논의를 다음 책에서 참조하라: 허셀 생크스/잭 마인하르트(편집), 「유일신 신앙의 여러 모습들 -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한 분이신가」 (강 승일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8), 33-76쪽.

지금의 구약 성서는 그 당시 일부 엘리트 야훼주의자들²⁶⁾의 신앙적 이상이 지배하는 저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서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낯선 다신론적 표현들은 사실 포로 시기 이전 이스라엘 민족의 보편적 신관이 담겨 있던 문헌들의 편린일 것이 분명하다. 심지어 신 32장 8-9절은 야훼 신이 가나안의 우두머리 신이며 창조주인 **יְיָ אֱלֹהֵינוּ** (엘 엘온)²⁷⁾ 휘하의 여러 신 중 하나이며, 야훼는 이 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분깃으로 받게 되었다는 사상을 전달한다. 이러한 사상은 아마도 야훼 신앙이 가나안에 정착하던 초기 단계에 발생하였을 토착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가나안의 화려한 신화를 접하게 된 당시 야훼 신앙인들은 충분히 신 32장 8-9절과 같은 상상과 고백을 하였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다신론적 표현이 수정되거나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구약 성서에 남아있게 되는 경우는, 아마도 그 표현이 담겨 있는 문구나 본문이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 표현이 전승 가운데 확고하게 ‘고정’되어 회람되었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못했을 경우였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신 32장 8-9절도 유명한 모세의 노래 중 일부로서, 성서에 문서화되기 오래 전에 이미 많은 이들에게 그 표현 그대로 회람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유입되어서도 쉽게 그 표현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창세기에서도 인간 창조나 인간 추방, 인간 심판과 같은 중요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수로 언급하는 기록이 있다(창 1: 26; 3: 22; 11: 7). 이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어 왔지만, 근간의 많은 연구는 이 구절들이 다신론적인 천상의회의 장면을 연출하는 것으로 본다.²⁸⁾ 특히 율

26)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야훼주의자란 문서설과 연관된 Y(Jahwist)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27) 창 14: 19-20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살렘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부터 살렘의 신 엘 엘온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장면이 나온다: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엘 엘온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엘 엘온을 찬송할지라도...” 이후 아브라함은 22절에서 대답할 때 엘 엘온의 이름에 ‘야훼’를 붙여 대답한다. 살렘의 신에게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앙적 충정에 의해 그 신을 자신이 믿는 야훼로 되받아 대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야훼는 후대의 첨가인지, 그래서 이 본문은 가나안의 종교와 야훼 신앙이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는 해석이 분분하다.

28) 다음을 참조하라. M. E. Polley, “Hebrew Prophecy Within the Council of Yahweh, Examined in Its Ancient Near Eastern Setting,” C. D. Evans/W. W. Hallo/J. B. White (eds.), *Scripture in Context - Essays on the Comparative Method*, (Pittsburgh: Pickwick, 1980), 148쪽; G. von Rad, *Genesis* (OTL), (London: SCM, 1961), 145쪽; J. Skinner, *Genesis* (ICC), (Edinburgh: T&T Clark, 1910); G. J. Wenham, *Genesis 1-15* (WBC, Vol.

38장 4-7절은 구약 성서의 전통 속에 창조가 신들의 모임과 함께 이루어진 것임을 잘 대변한다. 이 또한 그 구절들이 당시 얼마나 확고히 '고정'되어 회람되었는지 가늠하게 한다. 특히 창조와 관련하여 주변 민족들의 창조 신화들과 많이 견주어졌을 것이다.²⁹⁾ 그렇기 때문에 그 어색한 복수 사용이 수정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편이나 제 2이사야에는 야훼께서 바다와 그 속의 여러 괴물들을(라합, 레비아단 등) 쳐부수고 나서야 창조가 도래한다는 기록이 종종 나오는데, 이 또한 같은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예, 시 89: 5-12; 74: 12-17; 사 51: 9-11 등등).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민간인들에게는 창조에 대한 그런 신화적 믿음이 창 1장의 '엘리트적인' 이해보다 더 지배적이었을 것이다. 이는 주변 다른 민족들의 창조 신화와 유사하기도 하고, 견주어 우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매우 즐겨 회람되었고 상당히 '고정적'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신앙적 반응을 순수하게 드러내는 시편이나 창조를 새롭게 부각하려는 제 2이사야서에는 그런 '인기 있는', 그리고 고치기 어려운 만큼 확실히 '고정적인' 창조 이야기가 별 탈 없이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약 성서의 이러한 흔적은 당연히 성서 내부가 아닌 다신론 신앙을 지닌 주변 민족들의 문헌과 비교할 때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 문헌과 지역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가릿 문헌이 가장 면밀히 관찰되어야 할 자료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시 82편과 같은 구약 성서의 다신론적 본문은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적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생산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시 82편과 견줄 수 있는 고대 서아시아 문헌들은 무수히 많이 있다. 이 시편의 독특한 주제 중 하나는 천상의회의 결정을 통하여 신들을 벌하는 것인데, 이러한 주제는 메소포타미아 문헌의 천상

1), (Waco, Texas: Word Books, 1987), 27-28, 85, 241쪽.

29) 특히 창조가 신들의 모임 즉, 여러 신들의 유기적 협력 가운데 이루어 졌다는 메소포타미아의 무수한 증언이 있다. "When the gods in their assembly had created [everything(?)]"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곳도 있으며, 참조 A. Heidel, *The Babylonian Genesi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²), 64쪽. 이외에도 하이델(Heidel)의 같은 책 65-66, 68-69, 73-74쪽을 보라. 더불어 마르둑(Marduk) 신이 여러 다른 신들과 함께 창조를 하는 Enuma Elish Tab VI 도 빼놓을 수 없는 증언이다.

의회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³⁰⁾ 예를 들어, ‘엔릴(Enlil)과 닌닐(Ninlil)’의 이야기에는 둘이 사랑을 나눈 것이 발각되어, 엔릴이 천상의회의의 결정을 통해 쫓겨나게 된다.³¹⁾ ‘주(Zu)의 신화’에서도 우주 권세의 징표를 강탈한 주에게 신들의 회의가 결정하여 벌을 내린다.³²⁾ 물론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에도 신들을 향하여 큰 반란을 일으킨 티아맛(Tiamat)을 처벌하는 문제나, 티아맛을 격동시킨 킹구(Kingu)를 잡아 죽이는 결정을 하는 천상의회의의 모습이 나온다(Tab I 29-54; Tab VI 15-32). 더불어 마리(Mari)에서 발견된 예언 문헌 ARM 26, 196, 1’-14’와³³⁾ 히타이트의 ‘전쟁을 위한 제의’도 참고할 만하다.³⁴⁾

시 82편의 또 다른 주요 모티브는 ‘타락한 신적 존재’이다. 구약 성서에서는 주로 창 6장 1-4절, 사 14장, 겔 28장 1-10절, 28장 11-19절, 욥 38장, 단 11-12장 등에 나오며, 주변 서아시아 문헌에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구약 성서는 ‘의(義)’가 만물 창조의 기초이기 때문에(참조, 시 96: 10), 불의한 신들은 모두 멸망하여야만 한다(사 24장 21-23절; 27장 1절). 이 사상은 구약 성서는 물론 고대 서아시아 문헌에 편재한 ‘혼돈-질서’의 구조에 부합하는 믿음이다.³⁵⁾ 이 구조는 새로운 질서란 늘 혼돈을 타파하여야만 찾아온다는 정신적, 문화 인류학적 사상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에누마 엘리쉬에서 혼돈과 공포를 상징하는 티아맛과 킹구를 죽인 후에 마르дук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는 것도 같은

30) 이 부분은 Min-Suc Kee, *유험(2003)*, 37-40쪽 참조.

31) T. Jacobsen, *The Harps that Once... Sumerian Poetry in Transl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1987), 174쪽.

32) Tab II (Old Babylonian); J. B. Pritchard(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111-112쪽.

33) M. Nissinen, "Prophets and the Divine Council," U. Hübner/E. A. Knauf(eds.), *Kein Land für sich allein - Studien zum Kulturkontakt in Kanaan, Israel/Palästina und Ebimâri für M. Weippert zum 65. Geburtstag*(OBO 186), (Freiburg Schweiz/Göttingen: Universitätsverlag/Vandenhoeck & Ruprecht, 2002). 특히 여기 ARM 26, 196 에 나온 천상의회의의 의장인 다간(Dagan)의 판결과 시 82: 6-7에 나온 하나님의 판결은 그 수사법이 매우 유사하다: "네가 땅을 다스려왔다. 그러나 이제 너의 날은 지나갔고, 너는 Ekallatum처럼 너의 날을 맞을 것이다." //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담'처럼 죽으며 한 '빛나는 이' 같이 넘어지리로다." 유사한 수사법의 판결 선언이 겔 28: 2, 예복 1서 15: 4, 6에도 나온다.

34) Pritchard, *유험(1969)*, 354-55쪽.

35) '혼돈-질서'의 구조를 드러내는 각종 문헌들을 소개한 저자의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기 민석, "성서 히브리어 אֲדָמָה('물')과 אֲדָמָה('하늘')의 쌍수 형태에 대한 어원적 의미 고찰," 「복음과 실천」(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42 (2008), 48-49쪽 각주 16.

사상적 구조에서 나온 것이며, 유사한 사상이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문헌에도 나오고,³⁶⁾ 우가릿의 KTU 1.23, 흔히 '샤하르(Shachar)와 샤림(Shalim)'이라 불리는 신화에도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시 82편이 많은 고대 서아시아의 문헌을 통해 그 뚜렷한 주제와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시 82편 7절 해석을 위한 우가릿 문헌의 증언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그러나 너희는 사람(אדם 아담)처럼 죽으며 고관(עֵרֶשׁ שא림)의 하나 같이 넘어지리rod”라고 번역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우가릿의 KTU 1.23은 이 구절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문헌을 보면 *mt wšr*(모트[Mot]와 샤르[Shar])가 죽고 나서 샤하르와 샤림이라는 두 신이 탄생한다. ‘불임’이나 ‘과부’와 관련이 있는 이 부정적인 신 *mt wšr*가 죽은 후, 엘은 두 여신과 정력적인 성행위를 하고, 두 신 샤하르와 샤림을 낳는다.³⁷⁾ 여기에는 시 82편에서와 마찬가지로 ‘타락한 신적 존재’와 ‘혼돈-질서’라는 주제가 결합되어 있다.³⁸⁾ 그래서 *mt wšr*의 죽음 이후 두 신이 창조된 것이다. 김슨(J. C. L. Gibson)은 *mt wšr*를 ‘죽음과 고관’으로 해석하지만,³⁹⁾ šr에 대한 해석은 부분하다. 그 중 물린(E. T. Mullen)의 의견이 흥미로운데, 그는 šr를 아카드어 *sararu*(사라루/뛰어나다, 빛나다)와 연결하여, 그 이름을 ‘죽음과 빛나는 자’로 해석한다.⁴⁰⁾ 그리고 이 이름을 사 14장 12절의 ‘떨어진 자’ לִלְיָה(헤이렐)과 연관하는데, 이는 문자적으로 ‘빛나는 자’나 ‘계명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 전통에서 라틴어로 루시퍼(Lucifer)로 불린 자이다:

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לִלְיָה 헤이렐)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

36) Pritchard, *유헤(1969)*, 99-100, 111쪽을 보라. 여기에는 각각 'Creation of Man by the Mother Goddess' 와 'Myth of Zu'로 명명되는 신화가 소개되어 있다.

37) N. Wyatt는 이 죽은 신이 다른 아님 엘을 가리킨다고 말하나 이는 매우 드문 해석이다. 그의 *유헤(1998)*, 326쪽 각주 10을 보라.

38) 이하 KTU 1.23에 대한 논의는 Min-Suc Kee, *유헤(2003)*, 215-16쪽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39) J. C. L. Gibson, *Canaanite Myth and Legends*. (Edinburgh: T.&T. Clark LTD, 1978), 123쪽 각주 7.

40) E. T. Mullen, *유헤(1980)*, 238-40쪽.

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차폰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12절을 바로 뒤따르는 13절의 ןִכְפָּ (차폰/주로 ‘북쪽’으로 해석)은 우가릿의 신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사 14장에서 우가릿 문헌과의 교감이 발견되는 가운데, 이러한 이해는 타락한 신들이 אָדָם (아담)과 סַרְרִי (싸림)처럼 형벌을 받는 시 82편 7절과도 연계될 수 있다. 물론 시 82편은 매우 우가릿적인 것으로 늘 제시되어 왔었다.⁴¹⁾ 이 두 히브리 단어를 각각 ‘아담’과 ‘빛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은 물런(Mullen) 말고도 페이지(H. R. Page Jr.)에 의해 제시되었고, 이들은 우가릿어 šr 와 ‘빛나는 자’의 연관성에 무게를 두어 해석하였다.⁴²⁾ 많은 번역들은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처럼 넘어지리라”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저자의 의견으로는 신들에게 ‘사람처럼 죽으리라’는 판결은 납득이 가지만, ‘고관처럼 넘어지리라’는 판결은 다소 어색한 표현임이 틀림없다.

סַרְרִי (싸림)의 어근은 סַרַר 인데, 그 뜻은 분명치 않다. BDB(977)는 이 어근을 물런처럼 아카드어 *sararu*(사라루/뛰어나다, 빛나다)와 관련 짓는다. ‘타락한 신적 존재’라는 주제가 시 82편에 발견되며, 더불어 같은 주제가 사 14장에 있기에, ‘아담’과 ‘빛나는 자’는 무척 개연성 있는 번역이며, 더 많은 주목을 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아담과 빛나는 자, 이들은 구약 성서에서 모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본래의 자리에서 추방당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운명은 시 82편에서 본래 나라의 정의를 주관하는 특권과 책임을 누리고 행하다가 그 자리를 박탈당하는 부정신들의 운명과 일치한다. 다시 말하여 ‘빛나는 자’라는 신적 존재야말로 위의 우가릿 이야기와 사 14장 12절, 그리고 시 82편 7절에서 ‘타락한 신적 존재’와 ‘혼돈-질서’라는 주제적 구조 속에서 멸망당하여야 할 존재임이 분명하다.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난해한 것으로 알려진 시 82편을 우가릿 문헌을 통해 조명하여 보았다. 이 시의 천상의회 명칭이 갖는 권위와 7절의 새로운 해석이

41) 예, Y. Avishur, *Studies in Hebrew and Ugaritic Psalms*. (Jerusalem: Magnes, 1994).

42) H. R. Page Jr., *The Myth of Cosmic Rebellion - A Study of Its Reflexes in Ugaritic and Biblical Literature* (VTS 65), (Leiden: E.J. Brill, 1996) 참조.

이 연구의 결과이다. 즉 시 82편에 각별히 사용된 אֱלֹהִים(아다트 엘/신의 의회)은 이 시가 노래하는 것처럼 매우 중요하고 권위 있는 신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를 같은 어근의 천상의회 명칭이 사용된 두 우가릿 본문을 통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예언자들과 천상의 신비의 밀접함을 가리킬 때는 אֱלֹהִים(소드/모임)가 사용된 것처럼, 분명 시 82편의 천상의회 명칭도 권위 있는 고유한 의미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7절에서 불의한 신들에게 형벌을 선고하는 선포도 기존의 번역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 또한 우가릿 문헌 KTU 1.23과의 비교를 통해 유추한 것이다. 이 문헌은 ‘루시퍼’, ‘계명성’, ‘빛나는 자’로 알려진 소위 타락한 신을 지목하게 하며, 우가릿 문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는 사 14장과의 비교를 통하여 시 82편 7절과도 연계하여 보았다. 비록 본문의 표면은 기존의 해석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의 맞소리 본문이 본래 고유의 노래를 있는 그대로 담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어찌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천상의회의 상황은 쉽게 전승되어 왔지만, šr라는 타락한 신의 이름은 אֱלֹהִים(싸림/고관)으로 수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끝으로, 고대 서아시아 문헌과 구약 성서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한 가지 주지하여야 할 것은, 구약 성서에서 발견되는 소위 ‘이방적’ 사상은 사실 이방적인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고대 이스라엘의 민속 신앙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약 성서 자체도 이스라엘 민속이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종교 형태를 지녔는지 잘 증언하며 비판하고 있다. 오히려 구약 성서는 일부 강력한 야훼주의자들의 저작으로서, 그들의 신앙적 이상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한 작은 그림만을 보여준다.⁴³⁾

희귀하게 발견되는 본문들이지만, 사실 시 82편이야말로 당시의 보편적 신앙 형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본문이다. 그런 일부 본문들이 구약 성서 속에 이방 신앙이 유입된 흔적을 보인다는 단편적 이해보다는, 그것들이 당시 이방 민족과 같이 공유하였던 보편적 신앙의 형태를 보여준다는 입체적 이해가 더 적절해 보인다. 그렇기에 우가릿에서 발견된 여러 문헌들은 감추어진 이스라엘의 종교적 내용을 복돋아 줄 것이 분명

43) 위 각주 25에서 언급한 W. G. Dever도 그 같은 입장의 논의를 그 책에서 하고 있다.

하다.

더불어 위의 관찰은 가나안의 한 종교 문화와 야훼 종교 문화의 융합을 보여준다. 물론 야훼 종교 자체를 얼마나 가나안의 종교와 구분할 수 있는지는 모른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의 기원 내지는 야훼주의의 기원에 대한 정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82편은 절대적 유일신을 주지하는 야훼주의 속에 혹은 그 과거 발전 과정 속에 어떻게 가나안 토속 종교와 야훼주의가 어우러졌는지 그 일면을 보여준다.

5. 참고도서

- 기 민석, “우가릿 문헌 KTU 1.16.v 와 사 6장을 비교하여 살펴본 이사야의 사명,” 코 아 마르 아도나이 (엄원식박사퇴임논문집발간위원회: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145-164쪽.
- _____, “성서 히브리어 מַיִם(‘물’)과 מַיִם(‘하늘’)의 쌍수 형태에 대한 어원적 의미 고찰,” 『복음과 실천』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42 (2008), 41-62쪽.
- 생크스, 허셀/잭 마인하르트(편집), 『유일신 신앙의 여러 모습들 -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한 분이신가』 (강 승일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8).
- 조 상열, “우가릿 문헌과 구약성서의 관계: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28 (2008), 128-141쪽.
- 유 윤중, “우가릿 문학의 rpm과 구약성서,” 『구약논단』 8 (2000), 221-249쪽.
- Avishur, Y., *Studies in Hebrew and Ugaritic Psalms*, (Jerusalem: Magnes, 1994).
- Curtis, A. H. W., *Ugarit - Ras Shamra*, (Cities of the Biblical World: Cambridge: Lutterworth Press, 1985).
- _____, “Ugarit: Clues from a Canaanite City?” *Bulletin of the Anglo - Israel Archaeological Society*. vol 15 (1996-97), 105-106쪽.
- _____, “Ras Shamra, Minet El -Beida and Ras Ibn Hani: The Material Sources,” W. G. E. Watson/N. Wyatt(eds.), *Handbook of Ugaritic Studies* (HdO 39), (Leiden/Boston/Köln: Brill, 1999), 5-27쪽.
- _____, *Psalms*, (Epworth Commentaries: London: Epworth Press, 2004).
- Dahood, M., *Psalms* (The Anchor Bible, 16, 17, 17A), (NY: Doubleday, 1966-1970).
- Gibson, J. C. L., *Canaanite Myth and Legends*, (Edinburgh: T.&T. Clark LTD, 1978).
- Goetze, A., “An Old Babylonian Prayer of the Divination Priest,”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22 (1968), 25-29쪽.
- Handy, L. K., *Among the Host of Heaven: The Syro-Palestine Pantheon as Bureaucracy*, (Indiana: Eisenbrauns, 1994).
- Heidel, A., *The Babylonian Genesi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2).

- Jacobsen, T., *The Harps that Once ... Sumerian Poetry in Transl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1987).
- Kee, Min-Suc, "A Study of the Heavenly Council in the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 and Its Employment as a Type-Scene in the Hebrew Bible," (미 발간 박사학위 논문; Univ. of Manchester, 2003).
- _____, "The Heavenly Council and Its Type-scene," *JSOT* 31.3 (2007), 259-273쪽.
- Macdonald, J., "An Assembly at Ugarit?," *Ugarit - Forschungen* 21 (1979), 515-26쪽 .
- Marvine, T., *Psalms 51-100*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Books, 1990).
- Milgrom, J., *Number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New York: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Mullen, E. T., *The Assembly of the Gods* (Harvard Semitic Monographs), (Chico: Scholars Press, 1980).
- Neef, H. -D., *Gotteshimmlicher Thronrat*, (Stuttgart: Calwer, 1994).
- Nissinen, M., "Prophets and the Divine Council," U. Hübner/E. A. Knauf (eds.), *Kein Land für sich allein - Studien zum Kulturkontakt in Kanaan, Israel/Palästina und Ebirñari, Festschrift für M. Weippert zum 65. Geburtstag* (OBO 186), (Universitätsverlag Freiburg Schweiz: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2002).
- Page, H. R.Jr., *The Myth of Cosmic Rebellion - A Study of Its Reflexes in Ugaritic and Biblical Literature* (Supplements to Vetus Testamentum, 65), (Leiden: E. J. Brill, 1996).
- Polley, M. E. "Hebrew Prophecy Within the Council of Yahweh, Examined in Its Ancient Near Eastern Setting," C. D. Evans/W. W. Hallo/J. B. White(eds.), *Scripture in Context - Essays on the Comparative Method*, (Pittsburgh: Pickwick, 1980).
- Pritchard, J. B.(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Rad, G. von, *Genesis* (OTL), (London: SCM, 1961).
- Skinner, J., *Genesis* (ICC), (Edinburgh: T&T Clark, 1910).
- Smith, M. S., *The Ugaritic Baal Cycle - Introduction with Text, Translation and Commentary of KTU 1.1-1.2*, Vol. 1. (VTS 55), (Leiden: E.J. Brill, 1994).
- Wenham, G. J., *Genesis 1-15* (WBC 1), (Waco, Texas: Word Books, 1987).
- Wyatt, N., *Religious Texts from Ugari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검색어

서편 82편

천상회의
시편 82: 7
우가릿
KTU 1.23
다신론
이스라엘 민속 신앙

투고일: 2009년 4월 21일
심사일: 2009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 2009년 6월 5일

Psalm 82: Ugaritic Voice, Israelite Song

Min-Suc Kee,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In the article Psalm 82 is illuminated with the Ugaritic texts. It is concluded that the specific term naming the heavenly council in the psalm, עֲרֵת-אֵל is the one manifesting its seriousness and authority, as the corresponding words in its Ugarit usages mark the same. This understanding is made when the relevant references such as Psalm 82: 1; Isa 14: 13; KTU 1.2.i (*m'd*); and and KTU 1.15.ii (*dt*) were all read in comparison.

Another conclusion revises the traditional rendering of verse 7, in which the unjust gods are punished like a man and one of chiefmen. However, in the light of KTU 1.23, the two could be understood as 'Adam' and 'Shining One,' who is also known as 'Lucifer' or 'Morning Star,' the fallen divine being. Adam and Shining One are the ones who were outcast from their privileged home, and it is apt to the sentences fallen to the unjust gods in the Psalm. This rendering is made when Is

14, which seems to have a close association with the Ugaritic ideas, sheds a supporting light to the interpretation of Ps 82: 7.

The study surely leads us to reconsider about the so-called foreign polytheistic bits in the Old Testament texts. The foreign parts may, in fact, deliver the hidden picture of the ancient Israelite religion in real, especially in the Canaanite residing period. The Old Testament itself harshly criticizes the syncretic nature of the Israelite religions at that time. On the other hand, for the Old Testament was masterminded by a small group of YHWH enthusiasts, it unfortunately represents a narrow part of the ancient Israelite religion. Though rare, therefore, the passages like Psalm 82 could open our eyes to see through a small hole and to find the real scenes of the common religious beliefs of the Israelites in Canaan. Particularly Psalm 82 may well inform us how the/a Canannite indigenous religion was mingled with the Yahwism, which is supposed to have come from somewhere else and planted in the Canaan soil, probably.

Keywords

Psalm 82
The Heavenly Council
Psalm 82: 7
Ugarit
KTU 1.23
Polytheism
Israelite folk religion

